

2010년 3월 5일 말씀의 가치 채주명 예술단 교역자

- 인천 성빛교회

2010년을 앞두고 21일 철야조건 중 2010년 1월 4일 받는 말씀입니다.

* 예수님 2010년을 맞아 어떤 기도를 해야할까요?라고 여쭙보았습니다.

2010년에는 생명의 역사이니 너희에게 나타날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기도를 해야한다.

엄청난 일들이 너희 앞에 다가 오고 있다. 하나 하나의 매듭은 나와 함께 풀면 된다. 생명의 역사이니 목숨을 걸어야한다. 구원의 역사 앞에 목숨을 내걸고 해야한다. 그래야 겨우 할 수 있다. 말씀의 무기를 갖게 기도하고 연구하여라. 섭리사는 말씀이 최첨단이다.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시대를 잘 증거하고 재림의 역사를 속시원히 외치고 사랑의 기준을 세워 지구역사에 희망의 꽃이 되었던 너희 선생을 잘 증거해야한다. 아버지,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나의 사랑을 뜨겁게 전해야한다. 진리가 길이다. 생명이다. 말씀 연구를 많이 하여라.

* 예수님, 말씀 연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먼저, 성경 본문을 자세히 전후로 읽어보고 기도를 깊이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너의 삶을 조명하고 너의 사고가 될 때까지 외우며, 삶으로 외워 나와 일체시켜라. 삶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삶으로 말씀을 읽어야한다. 너희의 손과 머리속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하며 너희 영에게 자꾸 각인시켜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여라. 말씀으로 먼저 너희가 구원 받아 생명을 구원시켜야한다. 2009년도는 일체의 말씀이었고 2010년도도 나와 일체의 말씀이다. 알겠지? 나와 일체.

*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사람이 되나요?

말씀대로 살면 신이 된다. 내가 된다. 너의 스승의 몸도 된다.

* 말씀 듣기 전에 무엇을 기도해야하나요? 다시 여쭙보았습니다.

사탄이 방해하지 않게 잘 깨달을 수 있게 기도하고 속 깊은 심정을 깨달을 수 있게, 속글을 읽을 수 있게 기도하라.

너의 운명과 사고를 말씀을 들으면서 바꿀 수 있게, 너희가 외칠 수 있게 기도해야한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감사 기도는 빠뜨리면 안된다. 알겠지?

너희가 최신 무기를 들고 그 사용법을 모르면 사탄이 우습게 생각하고 너희들에게 덤빈다. 너희들에게 말씀의 최신 무기가 있어 사탄은 늘 두려워 하니 심정과 기술, 성령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자.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사탄이 두려워 떨며 기성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오히려 그들의 궁궐을 떠나 섭리에 모여든다. 나를 믿지 않던 자들도 사망을 이기고 나온다. 말씀을 전하는 자 복된 자이며, 말씀을 심정 있게, 능력 있게 전하는 자 내가 쓰는 자, 내가 위로 받는 자, 나의 마음을 속시원히 하는 자다. 알겠느냐?

잠시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말이 천지 창조의 원리이다. 나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정녕코 이루어지는 도다. 모든 것을 이루며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은 나의 말이다. 너희 선생이 전하는 말씀은 나의 말이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인류 근본을 육천년만에 이루는 말씀이다. 하늘의 말을 땅에 전하니 신령한 영이 되어 들어야한다. 지구 창조 육천년만에 처음으로 전하는 깊고 깊은 말씀들이다. 수준낮은 자들은 무시하지만 영이 깨어있는 자, 이 말씀 듣고 놀란다. 앞으로 온 세상이 너희 선생이 전하는 말씀 앞에 놀라는 역사가 올 것이다. 그러니 말씀을 귀히 여기며 담대히 과감하게 전하여라.

알겠지? 안녕. 여호와로다.